군산 디오션시티 더샵 견본주택 '인산인해'

군산은 물론 인근지역 실수요자 · 투자자 대거 몰려

포스코건설이 군산지역 디오션시티에 처음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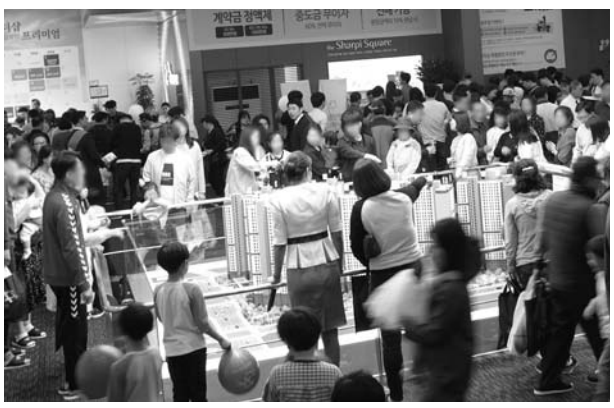
지난 3일 문을 연 '디오션시티 더샵' 견본주택에 군산은 물론 충남 서천, 익산 등 인근지역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디오션시티 더샵 견본주택 오픈 4일 동안 1만 6,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최근 디오션시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높은 가격경쟁력과 전매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거주 뿐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 된다고 덧붙였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김모(34세)씨는 "현재 디오션시티에서 거주 중으로 주거환경이 좋고 롯데몰이 근처에 있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분양가도 예상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돼 이번 기회에 지금 보다 큰 집으로 옮겨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지역에서 방문했다는 이모(47세)씨도 "익산은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넘는 수준이라 부담감이 크다"며 "군산은 향후 새만금 개발 등 주택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돼 실제거주 뿐만 아니라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오션시티 더샵 분양관계자는 "디오션시티에서 거주중인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 의사를 밝힐 정도로 디오션시티의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군산에서 1군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은 만큼 향후 진행되는 청약과 계약에서도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문을 연 '디오션시티 더샵' 견본주택에 군산은 물론 충남 서천, 익산 등 인근지역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디오션시티 더샵은 군산시 디오션시티 A4블록(조촌동 2-31)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145㎡ 973가구로 전용 면적 별로는 △59㎡ 229가구 △84㎡ 573가구 △103㎡ 112가구 △118㎡ 56가구 △145㎡(펜트하우스) 3가구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지역 전통시장에 新 활력 불어넣는다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지난 1월 공고된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북지역 전통시장 14곳이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번째 (특성화시장)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의 특·장점을 살리는 '문화관광형 시장'과 고객신뢰와 편리한 지불결제, 위생 및 청결 등 전통시장의 기초역량 과제를 수행하는 '첫걸음시장'을 지원한다.

두번째 (청년상인 지원) 전통시장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청년몰 조성사업'과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연구장비, 지식기술 재산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협력사업'이 추진된다.

세번째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개·보수'를 통해, 시장 방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이용 촉진에 기여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네번째 (화재알림시설)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감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더불어, 전북중기청은 연초 전통시장 지원정책 설명회를 통한 사업 홍보 강화와 신규 시장 발굴·확대, 전라북도 등 도내 지자체와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이번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하여 최근 대형마트·SSM의 확산과 미세먼지 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북지역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 및 상인 자생력 강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 충실"

전북중기청, 제50회 중소기업지원협의회 개최…정책정보 소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이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7일 50회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소통과 애로해소를 위해 2015년 4월에 전북중기청과 7개의 협·단체로 시작하여 현재는 28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지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소통기구이다.

협의회는 매월초 지원기관과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월별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현안·이슈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의 공통적인 애로사항과 건의된 규제를 해소하는 실질적 기구이다.

회의 종료후에는 주요내용을 협·단체 회원사(2,044개사)에 E-mail 등으로 전파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소통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9회를 개최하며 전달된 정책정보는 1,645건이며, 공통애로로 제기된 155건의 건의사항이 해결됐다.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지자체의 소액 R&D 성공기업이 포함됐고 여성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여성기업이 협동조합 설립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례는 대표적 애로해결사례로 꼽힌다.

또한, 군산 자동차·조선산업 위기, 일자리안정자금, 설·추석 전통시장 캠페인, 제로페이 이용 독려, 노동시간단축 등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민-관 협력 대응의 협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했다. 협의회는 50회를 맞아 그간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향후 협의회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발생한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전북지역 주력산업 중심의 '전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향후과제로 채택하고,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했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단체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져야 정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이들 간의 협업, 연계, 소통의 장인 협의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컨트롤타워이자 허브기관으로써의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창업성장지원과 이수지 주무관(063-210-6412)에게 문의하면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전북의사회와 자산관리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최근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와 자산관리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북은행 김종원 수석부행장, 임재원 부행장과 전라북도 의사회 백진현 회장, 김주형 의장, 정경호 총무이사, 박용현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은행은 전라북도의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기로 약속했으며, 전라북도 의사회는 자산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 했다.

전북은행 김종원 수석부행장은 "회원들의 개인별 특성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북도민과 함께 금융을 잇는 튼튼한 경제혈관의 역할을 다해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기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공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2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제도란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협약 및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한다.

지원대상은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실적이 적은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며, 지원규모는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에 따라 유동적이다.

시범구매제도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동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발생하는 감사부담을 해소하여 기술개발 신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기존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개발제품을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개척 등의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시범구매 규모를 2018년 기준 268억원에서 올해는 2,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횟수(2018년 2회→2019년 4회)를 확대하고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한 시범구매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시범구매 실적 반영 및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최재현 주무관(063-210-6481)에게 문의하면된다.

/김영태 기자

한전 익산지사, 어린이 날 맞아 미아예방 캠페인 시행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이건구, 위원장 김호기)는 최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펼쳐진 '익산 어린이 날 큰잔치'를 찾아 아이들에게 행복웃음 나눔행사를 가졌다.

본 행사는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스마트 미아방지 팔찌 달아주기 캠페인, 삐에로 등장 풍선만들어 주기, 황사마스크, 물티슈' 등을 무료로 나눠줘 어린이들이 하루만큼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2만여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이란 한국전력공사의 슬로건 아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으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재능기부와 사회적 기업 역할을 소개하며 복지할인 안내 등 각종 민원상담도 진행했다.

또한,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ESS장치, 배전설비, K-BEMS(한국전력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전기차 원리 등 궁금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영태 기자